

古小說 읽기의 社會學

蘇 在 英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말과 글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곧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나 글은 한 번 표현하게 되면 그 자취가 영원히 남는다. 말은 말하는 대상을 마주하고 하지만, 글은 일단 글로 씌어진 매체를 통하여 받는 사람에게 간접으로 전달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표정까지도 읽어 가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처한다.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받는 대상이 일단 보이지 않으므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 상상을 앞세워 쓰는 도리밖에 없다. 말에 비하여 글은 전달의 속도가 늦은 반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쓸 수 있으므로 확실성이 있다. 조선조 후기에는 이른바 講談師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즈음 말로 말하면 직업적인 이야기꾼인 셈이다.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다. 말이라는 것은 일단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지 못했던 조선조에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말이다. 그러므로 말을 통하여 그 마을이나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 내는 사랑방 문화가 발달하였고, 부녀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 우물가를 통하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통속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1. 古小說 읽기의 美學

講談師란 직업적 이야기꾼을 일컫는다. 趙秀三(1762~1849)의 秋齋記異에는 '이야기 주머니'(說囊)의 이야기가 전한다. 이야기 주머니인 金翁은 상말이나 야담 패설을 잘하여 항상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부들켜 안고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고 한다. 바야흐로 글귀를 따라 입심종게 덧보태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며 황설수설하는데, 그 민첩하기가 귀신이 돕는 것과 같아서 가히 골계의 영웅이라 일컬을 만하다고 하였다. 더구나 그의 말 내용을 상고해 보면 모두가 세상을 풍자하고 풍속을 징계하는 말들이라는 것이다. 조선 조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봉건주의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회 계층 간의 분화 현상이 촉진되고 상호의 의사 소통을 위해 대화가 촉진되는데, 이러한 시세의 물결을 타고 '세상을 풍자하고 풍속을 경계하는 말'(玩世警俗)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풍속을 趙秀三은 '지혜 구슬 둥글게 꿰어서 가로 세로 무늬가 아름답네, 줄음 막는 방패로는 골계의 영웅 제일이지, 산의 피꼭새와 들의 따오기 서로 송사하는데, 늙은 황새의 판결이 가장 공평하더라네'라고 시를 지어 읊조리고 있다. 이야기 주머니 속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여 상대방을 웃기고 울리는 매력까지 지녔으며 서민과 사대부 남성과 여성의 벽까지 허물 수 있었으므로 이야기꾼들은 이를 빌미로 삼아 사대부 사회를 파고 들어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번복을 하고 부녀자 사회를 파고 들어 사회적 말썽까지 빚은 사례가 기록되고 있다. 18세기로 접어들면 소설의 창작과 더불어 이른바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는 小說 講讀師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위에서 든 같은 趙秀三의 秋齋記異에는 '전기 읽는 늙은이'(傳奇叟)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늙은이는 서울의 동문 밖에 살면서 항상 책 없이 입으로 國文稗說을 읊조리는데, 淑香傳, 蘇大成傳, 薛仁貴傳 등의 傳奇들이었다고 한다. 매달 초하룻날에는 第一橋 아래 앉고, 다음날에는 第二橋 아래에, 셋째날은 배고개[梨峴]에, 넷째날은 校洞 入口[校洞口]에, 다섯째날은 大寺洞 입구[大寺洞口]에, 여섯째날은 鐘閣[鐘樓] 앞에 앉아서 이야기책을 읽는다. 일곱째날부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달이 끝나게 된다. 그 다음달에도 역시 그와 같이 되풀이하는데, 읽기를 너무 유창하게 하므로 듣는 사람들이 겹겹이 그를 둘러싸게 된다.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가는 가장 재미있는 대목에 이르면 문득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둘러싼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동전[葉錢]을 그 늙은이에게 던

져 주는데, 이를 일컬어 ‘돈버는 방법’ 즉 ‘邀錢法’이라고 하였다. 이를 秋齋集의 시구에서 보면 ‘아이들과 부녀들은 안타까워 눈물까지 떨어군다네, 영웅의 승패가 어찌될건가 땀을 쥐면서, 재미나는 대목에서 출연 말이 없으니, 돈 받는 법 묘하구나 누군들 다음 말이 듣고 싶지 않으랴’라고 읊고 있다. 이 기록은 직업적 講讀師의 일과를 보여 주는 대표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장소를 매일 이동하는 것은 새로운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마도 임병양란 후 절대적 독자층의 호응을 받아 창작된 英雄小說, 軍談小說類가 가장 인기가 높았던 모양이다. 소설의 문장을 유창하게 읽어 나가면 聽者[讀者]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물려든다. 가장 절정이 되는 대목에서 읽기를 멈추면,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로 엮전을 다투어 던져 주는데, 이를 통해 늙은이의 마음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시 읽기 시작하고, 이런 일을 한 달 내내 계속하는 것으로 직업을 삼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一橋, 二橋, 梨峴, 校洞口, 大寺洞口, 鐘樓前은 사람들[讀者]의 내왕이 가장 많은 변화가였음에 틀림없다. 그 목을 노려 오르고 내리기를 되풀이하면서 소설 독자들의 귀를 만족시켜 주고 돈을 버는 것이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의 熱河日記에서 보면, 연암이 귀국길에서 목격한 것으로, 한 중국인이 까마눈이면서도 손에는 水滸傳을 들고서 실제로 외우고 있는 것은 西廂記의 한 대목이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조선에 있을 적에 고로들이 林將軍傳을 읽고 있던 모습을 연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渡江錄). 이 역시 매우 소중한 기록으로 이미 17세기 즉 丙子胡亂 이후에는 전후 민중의 소망을 담은 林慶業傳 같은 英雄小說이 민간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美學일 수 있다. 옛적엔 국문을 쓰거나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남이 유창하게 읽는 글을 어깨너머로 흉내내어 소설 한 권쯤 거뜬하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에겐 자신이 외우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다. 水滸傳을 손에 들고 西廂記를 외운다는 것도 바로 이런 숙련공의 경우이었을 것이다. 필자가 중학교를 다닐 적만 하더라도, 겨울 방학 때가 되어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거처하는 건넌방에 두레명을 자오러 온 동리 늙은이들이 잔뜩 모여 있고, 그 가운데는 누군가 고담소설을 가지고 와 소리 내어 유창하게 읽어 주던 講讀師가 끼어 있게 마련이었다. 沈淸傳에서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인당수를 향하는 슬픈 대목에 이르면 눈물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이를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春香이 李道令을 이별하는 대목으로 잘못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는 소설의 읽는 내용보다도 귀절귀절 읽어 내는 독자

의 감정과 억양이 듣는 사람들의 정서를 먼저 사로잡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슬픈 가락의 정서 앞에는 내용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분위기의 정서에 함께 몰입하면 그만인 것이다.

西浦 金萬重(1637~1692)은 西浦漫筆 가운데서 東坡志林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三國志演義에서 유현덕이 패했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썹을 찡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많으나 조조가 패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 기뻐하고 상쾌하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通俗小說이 갖는 매력이며 권여라고 하고 있다. 유현덕과 조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뒤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감정이 이미 마음 속에 선전되어 있다면, 유현덕의 다소의 잘못은 애교가 되어질 수 있으나, 조조의 커다란 선도 그의 부정적 시각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소설의 언어는 감동적이면서도 다분히 주관적인 데가 있다고나 할까. 破睡篇[이조한문단편집]에는 李業福이라는 한 청지기[僉人]의 재미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업복은 어릴 적부터 이야기책을 땀시있게 읽기로 소문 나 있었다. 그가 이야기책을 읽을 때면 마치 읽는 소리가 노래하듯 원망하듯, 웃는 듯 슬픈 듯, 더러는 웅장하여 영결이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더러는 곱고 살살 녹는 듯한 계집의 소리를 짓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 소설의 내용에 따라 백태를 연출해 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잘 사는 집안에서 앞다투어 그를 불러다 소설을 읽히곤 하였는데, 어떤 서리 부부는 이업복의 이 기능을 높이 사서 아예 업복을 데려다 집에서 함께 먹여 살리며, 일가친척처럼 가까이 지내기도 하였다고 하고 있다. 청지기의 신분으로 소설을 잘 읽어 서리 부부가 그 재주에 반하여 아예 생계를 책임지고 친척처럼 지냈다고 하였으니, 소설 낭독을 직업으로 한 전문인으로서의 이업복은 전형적인 강독사가 아닐 수 없다. 또 里鄉聞見錄(유재건 저)에서 보면 李子常이라는 講讀師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이자상은 그 신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매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 각종 술서를 읽지 않은 것이 없고, 稗官雜書에도 밝아 어록 문자 계통에도 두루 통달하였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생계를 스스로 꾸려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만년에는 강독사로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었으며, 숙식을 하는데도 그리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李子常의 경우도 李業福과 같이 신분이 낮고 생계가 어려우나, 講讀師로서의 특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상류층과도 교섭할 수 있고 생계도 넉넉해졌음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具樹勳의 二句錄에서 보면 이러한 講讀師의 사례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경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신분이 매우 천한 상놈이 십여 세 적부터 언론

을 익혀 稗說 읽기를 즐겨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여자처럼 얼굴에 화장을 하고 심지어는 여자의 변장까지 갖추어 신분은 높은 사대부가를 출입하면서 부녀자들에게 패설을 가지고 들어가 읽어 주기도 하고, 혹은 방물장사도 하고 진맥을 하기도 하며, 여승들과 결탁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불공을 드려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음성까지 여자의 음성을 지녔는지라,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이 그를 한 번 보기만 하면 곧장 친숙해져서 심지어 부녀자들과 잠자리를 같이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빙자로 간음사건까지 벌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 이 일이 사회문제가 되자 이에 난처해진 당시의 판서 장봉익이 그 소년의 입을 막으려다 여론이 번져 나자 그를 죽이기까지 한 사건의 시말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류층 가문들의 호사한 생활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 뿐더러 소설이 남는 시간의 한가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로 부녀자층을 중심으로 많이 읽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순록의 작자도 이 사례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설 읽기가 그만큼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며, 조선조 후기로 접어들면서 서민계층이나 사대부가의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국문소설이 강한 흡인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번져 나갔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小說 읽기와 讀者關係

樊巖 蔡濟恭(1720~1799)의 女四書 서문에는 부녀자들이 읽는 稗書의 폐단에 대하여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근래 들어 규합 간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 오직 稗說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날로 더하고 달로 불어나 그 종류가 무려 천백 종류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儉家에서는 이를 깨끗이 베껴 써서 사본을 만들어 빌려 주고 문득 그 값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데, 식견이 없는 부녀자들이 혹 비녀나 팔찌를 팔기도 하고 혹 없는 돈을 빌려 오기까지 하여 다투어 책을 빌려다가 긴긴날의 소일거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당시의 사회적 폐단을 말하는 부정적 입장의 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역해석하면 이미 18세기에는 소설이 무서운 전파력으로 사회에 침투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주로 부녀자층을 상대로 소설 읽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는 ‘쾌가’(儉家)란 書儉, 즉 책 거간꾼을 뜻한다. 신간 서적이나 사대부가의 책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팔아 주고

그 이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서책은 소설[稗說]들을 구득하여 이를 베껴 내어 일정한 장소에 진열하여 두고 읽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직업을 삼았다. 오늘날의 貸與冊房과도 같은 것이다. 이미 체제 공 당시에 이 서책이 성행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李德懋(1739~1793)의 士小節에도 유사한 기록이 보인다. 諺語傳奇[국문소설]들은 가히 탐닉하여 읽어서는 안 되는데도 부녀자들이 바느질과 길쌈을 게을리하고 심지어는 돈을 이웃에서 빌려 오기까지하여 소설 읽기에 빠져 들어, 어떤 가정은 재산을 몽땅 날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18세기 말엽(1794) 對馬島 譯官으로 우리 나라에 왔던 小田幾五郎이라는 사람의 象胥記聞 가운데서 보면, 당시 조선에서 애독되고 있던 소설로 張風雲傳, 九雲夢, 崔賢傳, 林將軍忠烈傳, 蘇大成傳, 蘇雲傳, 崔忠傳 등이 보이며, 泗氏傳, 淑香傳, 玉橋梨, 李白慶傳 따위는 당대 고사를 소재로 하여 쓰여진 소설들인데 언문으로 읽기 쉽게 만들었으며, 三國志 등도 언문으로 번역된 것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소설의 주류는 軍談소설 내지 英雄小說들인데, 이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후 서민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이러한 유형의 소설들이 독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백여 작품이나 양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李緯(1680~1746)의 三官記에는 구운몽의 독자에 대한 주목할 언급이 있다. 전하는 소설 중에 九雲夢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는 西浦 金萬重이 지은 것으로, 그 큰 뜻은 세상의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작자가 모친의 세상 근심을 위로하고 풀어 드리기 위하여 창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포가 어머니의 일대기를 기록한 尹氏行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포의 모부인은 17세기를 통틀어 가장 모범적인 여성이라 일컬을 만하며, 자식들에게 직접 사서삼경을 가르칠 만큼 유식한 지식층 여성이었다. 그런데 못한 자식들이 당쟁에 휩쓸려 동찬서주하는 바람에 뒷바라지에 고생이 무척 많았으리라고 짐작되는데, 현실에서 온갖 부귀를 누려 보았으나 그것은 결국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운몽의 창작 주지를 통해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일설에는 서포의 어머니가 소설 읽기를 매우 좋아하여 서포가 중국에 가는 길에 재미있는 소설이 있으면 사 오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서포가 어머니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돌아와서는 그 죄책감에 자신이 직접 구상하여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창작하여 어머니에게 바쳤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들이 작자가 되고 어머니가 직접적 독자가 되는 셈이다.

彰善感義錄의 작자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趙聖期(1638~1689)의 어머니도 고

금사서와 전기를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는 누워서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소설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나 잠을 쫓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항상 그 뒤를 대어 읽어줄 책이 없을까를 걱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趙聖期는 아직 어머니가 읽지 않은 책이 어느 집에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책을 구해 드렸으며, 때로는 고설에 의거하여 자신이 직접 소설을 지어 바치기도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彰善感義錄이라는 것이다(拙修齋集). 서포의 謝氏南征記도 당대에 많은 독자를 가졌던 작품 중의 하나다. 이 작품은 더욱이 당시 여론의 화제가 되었던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의 관계를 유한림과 사·씨, 교·씨의 관계로 빗대어 정치적 현실을 풍자한 작품으로 더욱 독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후 서포의 종손자가 되는 金春澤이 濟州 謫舍에서 이를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문으로 번역 작업을 하면서 ‘백성의 법도를 돈독히 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돕기 위하여’ 번역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당시 소설 읽기의 잣대와 그 전승 계층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한편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 가운데도 재미있는 諺書古談이 전해지고 있다. 李圓嶠의 자녀 남매가 국문소설을 탐독하다가 집안에 가고를 당하여 계속하여 읽지 못하고 한쪽으로 책을 밀쳐 두었는데, 그날밤 꿈에 소·씨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 ‘어째서 사람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 놓고 원한을 풀어 주지 않느냐’고 하고는 홀연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 후 꿈에서 깨어나 크게 놀라 다음 편을 계속 읽어 보았는데, 형제 숙질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 거들면서 읽는 바람에 제삿날인데도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읽다가 제사가 점점 뒤로 물러지기까지 하였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꿈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현실과 작품 속의 구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본처 설씨가 악인으로 재취 윤씨가 선인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설씨가 소상서의 음식에 독약을 타고 이를 윤씨의 소행으로 누명을 씌우는 대목까지 읽고 그 뒤 윤씨가 누명을 벗는 대문을 읽지 않고 도중에서 소설 읽기를 멈춘 모양이다. 그러니 윤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원교의 꿈에 나타나 하소연한 것이다. 윤씨의 누명이 벗어지고 설씨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 작품이 종결된다. 이것이 대부분 조선조 소설의 효용이었을 것이다.

洪義福(1794~1859)은 청대의 李汝珍이 창작한 장편소설 鏡花緣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第一奇諺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사람이다. 그는 서류이므로 벼슬에

나갈 수는 없었으나 중국을 자주 내왕할 길이 있어서 중국소설을 자주 구입하여 읽곤 했다고 한다. 그는 문묵으로 할 일이 많은 터에 어찌하여 소설에 종사하여 지필을 허비하느냐고 빈정대는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제일기언을 읽으면서 강개 상쾌한 장면에 이르면 탄식하고 담소가 해학한 곳에 이르러는 한바탕 웃을 수 있으면 나름대로의 값이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고 있다. 효용성을 설파한 셈이다. 또 제일기언에는 자신이 일찍이 실학하여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환당을 뒤흔 한가한 때가 많으므로 전하는바 언문소설을 거의 읽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 대문이 있으니, 홍의복의 小說觀을 짐작하기에 족하다.

紫霞 申緯(1769~1847)의 警修堂集에는, 이 씨 성을 가진 나무꾼이 내가 사는 이웃에 살면서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밤이면 판술 불을 밝히고 소설을 읽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여성이나 식자층뿐 아니라 당시 평민들 사이에서도 소설 읽기가 즐겁고 보람된 일상 생활의 하나로 크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먼저 소설 읽기가 美學的으로 어떤 감흥을 주는가를 설명하여 왔다. 다음으로 소설을 읽는 講讀師의 직업의식, 소설의 작자와 그 소설을 읽는 독자와의 관계에서 사회학적 효용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왔다. 국문소설은 읽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재미를 지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소설 읽기가 처음은 일부 지식 계층에서 비롯되었지만, 부녀자층과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가장 왕성한 문화운동으로 성장해 왔으며, 사회 계층 간 문화 교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문소설은 시대를 잇고 계층 간을 잇고 남녀노소 간의 의사 소통을 활발히 촉진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의 기층문화를 다지는 데 커다란 기여가 있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